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누가복음 24:1-12]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 안식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2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기운 것을 보고 3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지 아니하더라 4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7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일에 다시 살아 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대 8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9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 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10 (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 11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듯이 뵈어 믿지 아니하나 12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푸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부활절이 돌아왔습니다. 부활절 이야기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눈을 감고 손을 뒤로 묶은 채 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것은 낯은 이야기가 되 버렸습니까? 매번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믿기 힘드십니까? 부활은 너무나 믿기지 않는 이야기라서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진실들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친구들이 그의 시체를 거둬들여 수의로 싸맨 뒤 무덤에 뉘었습니다. 거대한 바위로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침 여자들이 무덤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바위가 열려있었고 그 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명의 천사가 그들 앞에 서서 말하길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들의 날들은 아직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좀 나아질까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다시 예전과 같아질 수 있을까요? 천사는 그들에게 무엇이냐 말했습니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누가복음 24:5). 우리는 다시 찾아 온 부활주일에 소망을 맞이합니까? 아니면 아무 소망도 찾을 수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오랜 시간동안 공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까? 아니면 소망 속에 살아갑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물로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영원토록 살며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그 분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분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습관처럼 행하는 것이 아닌 믿는 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덤 옆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 아픈 과거들이 생각날 때 우리는 그것들을 무덤에 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 이것만 해결된다면....."이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능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불분명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위해 대속되었음을 압니다. 우리는 넘치도록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순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셨듯이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예수님의 재림날일 수 있음을 기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심은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덤은 비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성령님께서서 우리 마음에 증언되어주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급히 무엇을 전해야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쁨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 힘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가 복음을 전하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서 살아나셨습니다.